



흡정역 성경을 읽는 이유

Why I Read Korean King James Bible?

이것은 킹제임스 흡정역을 발행한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독자의 입장에서 읽으면서 발견한 내용과 문제점을 추가 작성한 것이다. 더 다양한 사례들과 흡정역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독자는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의 사이트(KeepBible.com)를 꼭 방문해보기 바란다.¹⁾

, , , 가

킹제임스 영어성경을 번역한 한글판 성경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두세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미 번역상의 많은 실수를 드러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공신력 면에서 믿을 수 없고, 또 한 곳은 번역의 완성도 문제로 판매를 중지한 후 개정 작업을 거치고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발행한 「킹제임스 흡정역 성경」만 믿을 수 있는 번역이다. 이렇게 누군가 바른 번역을 하고 있으면 협력해서 그것을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자기의 이름을 건 자기식의 번역을 위해 많은 비용과 힘을 낭비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흡정역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반복되는 소유격이나 주어 등을 있는 그대로 나오는 횟수만큼 번역하고 복수와 단수를 명확히 하며 의미 전달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가된 단어까지 구분해 놓았다. 또한 권위 있는 표현이나 기존의 표현을 최대한 살리지만 어려운 말은 모두 쉬운 말로 교체했다. 또한 기존 성경에 익은 독자들의 혼돈을 우려하여 대부분의 고유명사와 인물의 이름을 그대로 적용했다.

우리가 쓰는 한글 개역개정판 성경은 축약과 한자어가 많아 문장이 그리

1) 「1318 A to Z」() 가 .

길지는 않은데, 한글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은 축약된 부분을 복원시키고, 단어 대 단어로 모두 번역했기 때문에 개역개정판보다는 약간 길어진 듯한 느낌이다. 개역성경은 간결함의 장점 이전에 정확성을 먼저 염두에 두었어야 했다. 오래전에 번역됐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획득한 ‘간결함’이다. 그러나 어떤 장점도 본문의 명확성과 바꿀 수는 없다.

말을 줄이다 보니 한자가 등장하고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온다. 어린아이들은 뜻도 모르면서 무작정 외워 암송대회를 하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외워 놓으면 다 도움이 되고 마음 밭에 새겨지기도 하겠지만, 말씀은 그 외형을 아는 것보다 거기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선 아닐까?

()

(?)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즙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복음서를 계속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해융(스펀지 같은 것)에 적신 ‘신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나온다. 어떤 해설 성경에서는 이것을 신 포도주와 계란과 물을 섞은 로마 병정의 음료라고도 했고,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값싼 포도주’로 번역하고 있다. NIV에서는 그것을 ‘wine vinegar’ 즉 ‘포도 식초’나 ‘신 포도주’로 번역할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어기고 돌아가시기 전에 포도주를 마셨단 말인가? 이들은 단어를 추가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그냥 ‘식초’(vinegar)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말을 맞추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조율할 수도 없다. 변개되지 않은 본문에서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뜻이다. 오히려 왜곡을 위해 천주교 역본들이 손질되었다.

또 성경에는 예수님이 맛보시고 거절하신, 일종의 진통제인 ‘쓸개 탄 포도즙’도 나오는데 이것도 ‘식초’로 같은 단어이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은 몰약을 섞은 포도즙을 거절하신다.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 때도 포도주를 들지 않고 포도즙을 드셨음을 알게 된다. 어디에도 예수님이 ‘포도주 와인’을 드셨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와인’은 포도주와 포도즙을 동시에 가리키므로 문맥을 분간해서 번역해야 한다. 누룩이 들지 않은 빵을 먹는 유월절에 누룩이 든 술을 마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흠 없이 완전한 유월절 희생양이 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

개역성경의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런데 원래 여기서는 ‘요한’이 아닌 ‘요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고유명사가 틀린 것이므로 치명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바리새인들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며 분노했다. 성경의 인물을 구분할 때 그의 아버지를 자주 소개하는 것은 동명이인의 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개역개정판에서도 “바요나 시몬아”라고 제대로 표현되어 있다. 바요나의 ‘바’란 ‘아들’이라는 의미이므로 이것은 ‘요나의 아들’을 뜻한다.

복음서가 중에 즐겨 부르곤 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곡이 있는데 여태껏 잘못 불렀다니…. 왜 이런 단순한 실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 더더욱 개역성경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

이사야서 14장 12절 부분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개역개정판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How you have fallen from heaven, O morning star, son of the dawn! ; 신국제역 NIV)로 나오고 있다. 여기서 ‘모닝 스타’(morning star)는 ‘새벽별’로서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칭호와 동일한 말이다.

자주 부르는 찬송가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의 그 새벽별이다. NIV의 계시록에서는 앞 글자를 대문자로 Morning Star로 쓰고 있긴 하지만 같은 명칭이며 원문에는 없는 말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계시록에는 모닝 스타의 이니셜이 굳이 대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NIV가 불필요하게 대문자로 표기한 것은 예수님과 사탄의 이름을 동일시 해놓고 다르게 쓴 것처럼 속임수를 쓴 것이다. ‘새별’(히브리어 ‘힐렐’, 영어로

루시퍼 Lucifer, 우리말은 금성 혹은 계명성)은 타락한 천사장 사탄의 본래 호칭이다.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이 부분을 “오 루시퍼야”로 표현했다. 이로써 개역성경을 통해서도 성서에 단 한번 등장하는 사탄 마귀의 원래 이름을 알 수 없다. 우리가 많이 쓰는 ‘갈보리’라는 말도 그 뜻에 해당하는 ‘해골’로 대치가 되어 개역성경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된다는 로마서 14장 10-12절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대로 바꾸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모호하게 만들고 그분의 권위와 권한을 축소시켰다.

가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이나 과학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나온다. 예컨대 성경에는 유니콘이라든지 용(dragon, 공룡)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러나 개역성경의 역자들은 유니콘이 전설의 동물이라는 잘못된 지식과 사람이 살던 시대에 공룡이 살지 않았다는 진화론적 선입견에 근거해서 유니콘은 들소로, 용은 뱀 등으로 독자를 위해 알아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모호한 번역을 보게 되고 진화론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개역성경의 역자들은 또한 짐승에게 영이 있다는 부분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을 ‘혼’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변경을 통해 의미의 왜곡을 가져왔다. 이처럼 개역성경 등은 역자가 이해할 수 없거나 독자가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알아서 바꿈으로써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였다.

요한일서 4장 3절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이다. 이것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큰 차이이다. 이렇게 성육신을 부인하고 변경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며 의도이다. 성경을 읽는 독자가 이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다면 역자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텐(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종교심)이 많도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NIV 등의 영어성경이 ‘religious’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종교성’으로 번역된 것 같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superstitious’ 즉 ‘미신적’이라는 말로 쓰면서 다음과 같이 전체를 번역하고 있다.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이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바울은 그들의 우상숭배 실태를 알게 되었고 그의 영은 속에서 격동했다. 또한 위의 ‘미신적’이라는 책망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와 훈계가 계속 나오므로 이 구절은 미신에 대해 바울이 격노한 것을 보여 주는 확실한 증거라 하겠다. 그런데도 일부 목사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사람들을 훈계할 때는 우선 그들을 칭찬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도 한다. 즉 그들은 여기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너희는 종교심이 많아서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함으로 그들을 치켜세우고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성경 번역의 작은 실수 때문에 큰 개념이나 교리의 오해까지 불러올 수 있다.

개역성경은 야고보서 5장 16절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도 “죄를 고백하라.”로 바꾸어 천주교의 불법적 고해성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즉 실수 혹은 잘못(fault)을 죄(sin)로 바꾼 것이다. 물론 그들은 ‘서로에게’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죄를 고하므로 어차피 성경에 없는 행동을 한다.

개역성경은 가장 명확하게 삼위일체에 대해 알려주는 요한일서 5장 7절의 정확한 번역도 대부분 삭제하고 얼버무림으로 여호와와 증인들의 손을 들어 주는 결과를 낳았다.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라.” 세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무척 애매한 표현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하늘에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또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요한복음 1장에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고 되어 있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다.

(?)

이밖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는 ‘없음’이라는 부분도 원문에는 모두 각 구절이 존재하고 있다. 개역성경의 본문을 제공한 이들은 이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추측 기법을 동원하여 많은 부분에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상당부분 성경을 삭제했다. 이 모두는 사실상 ‘이유 있는’ 음모에 의한 불순한 삭제이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5장 28절을 보라.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경우 대개는 “사본에서부터 없었나 보다.” 하든지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없어서 누락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왜 절수는 그대로 남아 있을까 궁금했었다. 이 부분의 말씀은 이것이다.

이로써,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강도 들과 함께 못 박히셨다는 정황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당연하며 필요한가! 27절은 이사야서 53장의 메시아 예언이 그대로 실현됨을 알려 주는 중요한 말씀이다. 마가복음 9장 44절과 46절도 지옥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인데 이들은 이것들도 모두 삭제하고 다른 곳에서도 애매모호한 말로 바꾸는 등 계획적인 변개 의도를 보여 준다.

NIV 등의 번역자들 중에는 무신론자도 있고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은 물론 동성애까지 옹호하는 자들도 있다. 또한 다윈의 진화론에 관한 책을 옹호하고 신뢰하는 자들도 많다. 또 그들은 로마카톨릭주의가 믿는 허구의 연옥설이나 죽은 뒤에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수용하기도 한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부정하며 이것이 보편적 이단 교리의 한 측면이라고까지 말함으로써 성경을 의지해 일생을 살아온 평범한 성도들을 경악하게 한다.

예를 들어 NIV의 주 편집자 팔머는 자신들의 NIV가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는 성경이라고 말한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성경 구절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채택한 ‘변개된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말이며 자신들이 삭제한 구절들을 무시하고 하는 말이다.

구스	이디오피아	창2:13
들소(오역)	유니콘	민23:22 등
사랑과 타조(오역)	용들과 올빼미들	사23:20
발등상	발받침	사66:1
기묘자	놀라우신 이	사9:6
모사	조연자	사9:6
묘성	플레이아데스 별무리	욥38:31
삼성	오리온 별자리	욥38:31
룻(나라 이름)	루디아(Lydia, 나오미의 며느리 '룻'은 Luth임)	겔27:10
복술자	점쟁이	삼상6:2
방백	통치자	에1:21
감람	올리브	마24:3
분봉왕	사분(四分)영주	마14:1
참람한 말	신성모독하는 말	마26:65
쓰스	주피터	행14:12
허메	머큐리	행14:12
자주 장사	자주색 옷감 장수	행16:14
에비구레오	에피쿠루스 학파	행17:18
스도이고	스토아 학파	행17:18
아텐	아테네	행17:16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히5:10
진설병	보여 주는 빵	히9:2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딤후4:2
구리장색	구리 세공업자	딤후4:14
무저갱	바닥없는 구덩이	계9:1
황충	메뚜기	계9:2

개역성경을 읽으면서 뜻을 여러 번 생각하다가 결국 그냥 넘어간다든지, 다른 뜻으로 오해한다든지, 사전이나 쉬운 성경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일이 있는데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의 말씀과 거기서 다루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관계가 먼 옛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고 가슴에 와 닿는다는 것이다. 내용이 더 많이 이해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베드로전서 2장 13-15절 말씀을 보자.

13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나는 여러 번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 문장들의 의미를 단번에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음은 흠정역의 번역이다.

13 너희는 를 위해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14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 위해 그분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 하라. 15 그리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좀 길긴 하지만 훨씬 쉽지 않은가! 아니 이제야 말이 된다. 흠정역으로 읽으면 뜻이 쉽게 이해되고 마음에 더 와 닿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태도가 바뀐다. 모호한 표현이 모호한 개념을 낳고 모호한 개념이 어중된 신앙자세와 미신적 신념 등을 가져온다.

가

읽기 어렵고 뜻이 변질된 성경을 고수할 것인가? 지금까지 그 성경을 보고도 성령님은 역사하셨고 한국교회는 부흥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들이 다 무효라는 말이냐고 항의하는 이들도 있다.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헛일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개역성경은 오랜 세월 보존된 성경의 권위를 잘 표현했고 또 간결하면서 복음도 담겨 있어서 한국교회의 발전과 신앙인들의 영적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우리는 완전치 못한 것을 보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 작은 실수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거대한 오류의 개념들과 신앙 행태를 낳고 점점 더 커져가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

한글판 개역성경은 애초부터 천주교에서 쓰는 - 공인 본문이 아닌 - 이집트 본문을 기초로 한 미국표준역(ASV)에서 번역되었고 NIV 등의 일반적 현대역본들을 참고하여 수정되어 왔다.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마치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발표된 김민기의 음반에 '아침이슬' 같은 중요한 곡들이 빠져 있는 것과 비슷하다. 저항을 위한 노래로 만든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노래들이 빠진 김민기의 음반은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의 핵심 사상은 빠져 있다. 평론가들은 그 음반이 난도질당했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원본이 들어 있는 음반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말하려면 원래의 음반을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셰익스피어의 이야기들은 본래 연극 대본이므로 독서용으로는 마땅치 않아 영국의 찰스 램 남매에 의해 소설로 재구성되었다. 어떤 번역서는 아예 저지를 '램'이라고 명기한 것도 있다. 이같이 독서용으로 읽는 셰익스피어의 책들은 완전히 재창조된 것이지만 원래는 모두 극장에서 쓰던 희곡들이다. 따라서 셰익스피어를 연구하려면 그의 희곡을 읽어야지 재구성된 소설만을 읽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말이 아닌가!

일개 기수의 음반과 작가의 책도 이렇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에는 원래의 것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마땅하고 또 마땅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또한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왜곡했다면서 흥분한다. 그런 교과서는 많은 부분이 변조됐지만 아마도 성경이 변개된 양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동북공정의 음모가 담긴 중국의 역사책은 어떤가! 그런데 이런 책들은 아무리 폐기하고 또 새롭게 바꾸려 해도 어딘가에서 읽히고 있다. 독도가 일본 땅이며 동해가 일본해라는 표기는 아무리 오류라고 목청껏 외쳐도 어딘가에서 변질되어 계속 책으로 발행되며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다.

그런 것처럼 변질된 성경도 계속 어딘가에서 영향을 미치며 그야말로 그것들만의 진화를 거듭하여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개역성경은 많은 중대 오류와 자잘한 실수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히브리어 ‘JHWH’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봐 두려워서 눈으로만 확인하고 ‘아도나이’(주)로 읽었다는 말도 있다. 영어의 Jehovah는 ‘JHWH’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넣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말 ‘여호와’는 바로 이 Jehovah를 다시 음역한 것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JHWH’를 전체 대문자 ‘LORD’로 표기하고 있다.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이 단어를 굵은 고딕체의 ‘로’ 표기하였고 보통의 ‘주’(소문자 ‘lord’)와 예수님을 뜻하는 ‘(’ (첫 글자만 대문자인 ‘Lord’)를 모두 구분했다. 그래서 ‘주여’라고 할 때 그것이 그저 주인을 뜻하는지, 상대방을 하나님으로 여겼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명확해진다. 즉 단어 단어가 그 구절의 상황과 배경을 스스로 설명해 주고 있다.

개역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로 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자신들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것은 “There is one God.”을 잘못 번역한 것이며 원래는 “한 하나님이 계시느니라.”로 하는 것이 맞다. 그게 그 말 아니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세 분이 모두) 한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마치 세 명이 모인 ‘한 가족’이 한 사람이 아니듯이 말이다. one을 1로만 받아들이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

‘하나님의 신’ 또는 ‘여호와의 신’, ‘내가 주의 신을 떠나’ 등에서 쓰인 신(god)이라는 용어도 ‘신 내림’ 등으로 쓰이듯 무속적인 개념에서 나왔으므로 성경에 쓰기에 적절치 않다. 물론 ‘Spirit of God’은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해야 한다.

‘귀신’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 이는 ‘죽은 사람의 넋’이라는 뜻이므로 성경적 개념이 아니다. 또한 마귀는 사탄을 지칭하는 것으로 하나뿐이고 그 쫓개들은 귀신으로 불려야 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신들(gods)과 유일한 하나님(God)이 다르고 아들들(sons)과 독생자(the Son)가 다르듯이

마귀들(devils)과 유일한 마귀(the Devil)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다.

성경에는 성별을 명확히 번역해 놓아야 신학적, 교리적 오해가 싹트지 않는다. 성경의 천사는 모두 남자로 'man'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을 '사람'으로 번역하면 천주교와 뉴에이지에서 말하는 아기천사와 여자천사 등을 모두 인정하게 된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감독(목사) 직의 요건에 나오는 'man'도 '사람'이 아니라 '남자'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그 뒤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나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즉 목사와 집사는 남자만 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친다. 번역만 잘 되면 더 이상의 잡음이 있을 필요가 없다. 뉴에이지 역본들이 한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을 한 '아이'로 바꾸기도 하는데 이것 역시 작은 차이 같으나 큰 변개이다.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주님의 천사들'과 타락한 루시퍼의 명령을 따르는 '마귀의 천사들'을 구분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그러나 흠정역은 원문 그대로 표기함으로써 읽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를 없앴다.

?

개역개정판의 잠언에도 엉뚱한 번역이 많다. 그 일례로 잠언 17장 8절을 보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뇌물을 이용하라는 것인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가르침이다. 동류라고 할 수 있는 NIV를 보니 분명히 bribe(뇌물, 미끼, 유혹물)라고 써어 있다. 그러나 킹제임스 흠정역을 보면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즉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로 되어 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bribe'가 아닌 'gift'로 기록한다. NIV 번역자들의 특성인 자의적으로 다시 해석하는 습관에 따라 이들은 이것이 누군가에게 주어 일을 성사시키는 선물이므로 뇌물로 본 것 같다. 개역개정판은 이런 성경들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같은 과오를 저지른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준 선물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도 있고 이는 반드시 대가성의 뇌물이 아닐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원문에 있는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2차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은 성경 해석에서는 절대 금물이다.

‘ ’ ?

개역개정판에는 예수님이 순순히 잡히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분노하여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경솔한 행동을 하자 그분께서 꾸짖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마26:53)

이것은 틀리지는 않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 내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인지 해설을 보기 전에는 ‘열두 영의 영(營)이 그냥 영(靈)인 줄만 알았지 로마 병영(兵營)의 군단 편제를 뜻하는 것인 줄 몰랐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오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며 12사도를 떠올려 천사도 ‘12개의 영’이 예수님을 지키나 보다 하고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V에서 ‘legion’이므로 ‘열두 군단’으로 번역해야 한다. 만일 이런 식으로 오해한다면 ‘열두 군단’과 ‘열두 영(靈)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논할 때 큰 차이를 가져온다.

,

마귀는 에덴동산에서부터 말 바꾸기를 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지만 마귀는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다. 또 그것을 먹으면 눈이 열리고 -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속였다.

그 열매를 먹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 이브는 사탄의 질문에 들은 대로 답하지 않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말을 바꾸어 전한다. 왜곡과 변질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사탄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교묘히 성경을 이용했다. 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며 시편 91편 11-12절을 써 먹는다. 개역개정판으로 마태복음과 시편을 비교해 보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6절, 사탄이 시편 91편 11-12절을 인용한 부분. 개역개정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시 91:11-12, 개역개정판)

배열만 좀 다를 뿐 같은 내용이다. 이번엔 흠정역으로 두 곳을 비교해 보자.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마태복음 4장 6절, 사탄이 시편 91편 11-12절을 인용한 부분. 흠정역).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시편 91편 11-12절, 흠정역).

어디가 다른지 보이는가? 밑줄 친 분을 보라. 시편 91편을 살펴보면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의 날개 아래를 거처로 삼으면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만난 모든 길에서 피하게 해 주신다는 뜻이다.

그런데 마귀는 여기에 한 마디를 살짝 끼워 넣었다. 바로 시편에 없는 말 ‘언제라도(any time)이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든지 말든지 모든 길에서 천사가 ‘언제라도’ 너를 보호한다고 교묘히 바꾼 것이다.

이 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차이를 보이며 드러나 있지만 가장 많은 변경과 삭제된 NIV나 NASB의 두 영어성경을 찾아보니 이 차이가 없었다. 시편의 말을 마귀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옳고 있다.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대언자(?) 마귀’라니…!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열매 없는 삶을 살고 모호한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며, 교회에 세상의 지식이 흘러들어 말씀과 과학과 현상을 모두 따로 믿으며 진리에서 떠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지 않은가? NIV 편집위원회에는 공공연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동성연애자도 있으니 더욱 놀랍다. 의의 사도요, 광명의 천사로 행세하는 사탄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닌가?

현대의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여러 가지 변경된 성경을 인용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심지어 여러 성경의 번역들을 예시하면서 자신의 설득력을 더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개탄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여기저기 다양하게 번역된 예를 들어 부연 설명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사역자 토미 테니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그가 자기 메시지의 신빙성을 주장하기 위해 여러 역본들을

인용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왜냐하면 말씀은 한 가지이고 사실도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목회자들도 이런 영향을 받아 한 구절로도 한편의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한 정황을 상상해 내는데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 생각한다.

다음은 그의 책에서 옮긴 내용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에피소드에 관한 것이다.

!

가 가 . 가

가

(?) 가

).

이건 그가 인정한 대로 ‘특이한’ 소설이다. 다윗은 도시락이 아닌 양치기의 자루에 물맷돌을 가져갔다. 골리앗은 다윗의 도시락을 본인이 먹겠다고 하지 않았고 “너(다윗)의 살을 날짐승과 들짐승에게 주겠다!”고 했다. 또한 다윗은 도시락을 써서 소풍을 가지도 않았고 소풍을 가는 마음 자세로 임하지도 않았다.

토미 테니는 왜 앰플리파이드 성경을 인용했을까? 그것은 의역성경이다. 다시 말하자면, 벌써 노인이 됐을 다니엘이 사자 굴에 빠진 이야기를 ‘아이들 용’이라 해서 어이없이 꼬마 소년으로 삽화를 그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성경 이야기’에 가까운 번역이다.

그가 조크로 덧붙인 ‘록앤롤’에 관한 이야기도 뜬금없다. 그는 ‘바위(물맷돌)와 (골리앗이) 구른다’라는 뜻의 ‘Rock and roll’을 말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디제이 알란 프리드에 의해 처음 사용된 이 말은 퇴폐적이고 강렬한 음악을 이르는 말로 남성의 성기와 차의 바퀴를 뜻하는 것으로 카섹스를 의미하는 비속어이다.

자신이 의도한 결론이나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여러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 누구라도 거기의 구절들을 자기의 주장과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골라 쓰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는 양심 없는 과학자들이 잘 쓰는 수법으로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이에 합치되지 않는 결과들은 모두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들을 말씀과 다른 성경적 정황이나 예표 등을 통해 유추해 내는 것과 다른 내용으로 발전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말씀을 소설처럼 전개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토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써내려 간다.

가 () , 가
2
() .

그러면서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주님께로 끌어당겼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주님을 찾았으며', '필시 1마일은 달렸을 것'이라고 전혀 성경에 없는 말들을 써 놓았다. 이런 상상이 과연 필요할까? 책의 페이지를 늘리거나 1년 내내 해야 하는 설교 시간을 늘리기 위함은 아닐까?

그는 부정한 영에 들린 광인(狂人)이 2천 명의 마귀들로 꽉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었고 마귀들도 한 사람의 찬양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찬양의 힘은 위대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광인이 와서 '경배하고 부르짖으며' 예수님께 자기들을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청하는 대화 자체를 보라.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마귀들의 대화이다. 또 성경은 2천 명의 더러운 영들이 굴복한 것은 광인의 찬양 때문이라기보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다고 정확히 말한다. 마귀들이 돼지 떼로 옮겨간 것도 예수님의 허락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이었다. 그분의 권한과 능력을 간과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물론 토미 테니를 포함한 유명한 사역자들의 가르침에는 훌륭한 부분도 있고 통찰력도 있다. 그러나 말씀을 멋대로 부풀리거나 편리한 대로 추측하여 연결시키면 안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나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무리한 영적 해석을 낳고, 설교와 저술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과도한 포장과 지나치게 세세한 해석을 도입하는 것은 자칫 큰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도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한다. 국내의 인기 있는 저명한 사역자들이 이 책을 위해 극찬의 추천사를 쓴 것은 주목할 일이다. 이밖에도 릭 워렌 등 많은 이들이 여러 역본을 인용하며 자기 논리를 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단 교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논리를 성경 하나로 전개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성경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부분 기존 교단의 사람들이 다. 더구나 많은 이들이 더욱 개악된 새 성경을 기존 성경의 저작권 만료 시점이

오기 전에 억지로 배포하여 의무 사용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기득권층이었던 사제들처럼 행동한다. 이제는 교단이라는 이름 때문에 바른 성경에 대한 자기 소신이 있다 해도 이제 와서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목사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우스갯소리도 이래서 나오는 것 같다. 교단 조직이란 곧 밥줄이며 하나님보다 무서운 것이 되었다.

바로 이런 때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다면 진리에서 떠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왜곡된 역사교과서로도 어느 정도 역사를 알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사실도 나와 있다. 그런데 그런 침략이 근대화에 도움을 주고 문호 개방에 순기능을 했다는 주장은 황당한 것 아닌가? 지금의 개혁성정과 개정개정 판 등을 보라. 모든 부분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을 통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놓치게 된다.

성경은, 읽으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통로가 돼야 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철저히 말씀을 보존하고 전해 오셨는지, 왜 그토록 작은 부분의 차이를 명확히 하라고 하셨는지 알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끝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계시록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고 누구라도 마음대로 고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탄을 본받는 짓이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은 나도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나 중세의 영어로 장중하고 어렵다고 들었다. 그러나 사전을 찾으며 숙지할 예스러운 표현들이 조금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는 현대역본들보다 쉽다.

물론 영어 단어들이 일부 고어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등급 수준 지표를 보면 미국의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반면에 현대인에 맞게 쉽게 번역했다고 거짓말하는 NIV 등은 고등학교 1학년은 돼야 이해할 수 있는 등급으로 평가가 나온다. 문장의 길어도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들에 비해 음절수가 3분의 2 정도 이하로 나타나서 현저히 짧고 명확하여 외우기도 쉽다.

기존 한글 성경의 문제는 본문에 약간의 물을 섞어서 전체를 희석시킨 것 같은 그런 종류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는 소량의 독이 들어 있다. 그래서 독자는 습관적으로 마시면서도 그 독을 잘 모르지만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 그 독에 즉 마귀의 함정 메시지에 면역이 되어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 성경 문제의 중요성이 있다. 아직도 우리말 흠정역 성경을 쓰는 것을 주저하시는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